

# ‘학교돌봄터’ 신설에 다시 터진 ‘돌봄 갈등’

교육부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 발표

전담사들 “철회하라”...학부모·교원단체 “조속 시행”

민간위탁 가능 여부도 모호... ‘돌봄 질’ 하락 우려도

정부가 초등생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공간을 빌려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 사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뜰이나 아이 돌봄 문제가 민감해지면서 학부모들의 ‘온종일 돌봄’ 조속시행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남 복지부와 함께 학교돌봄터를 올해 750개와 내년 750개 총 1500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서 학교돌봄터는 기존 초등학교교실과 달리 학교가 교실만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현재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할 수도 있고, 기존 초등학교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환을 택할 경우 지자체가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전환 범위도 초등학교교실 전체를 학교돌봄터로 바뀌고 되고, 일부만 전환해도 된다. 선택은 개별 학교와 지자체에 달려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 업무 경감이 가능한 학교돌봄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돌봄 전담사 노조 측은 기존 학교돌봄

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는 것은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로 정부안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내년까지 돌봄 시설을 1500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학교돌봄터가 추가될 경우 기존 초등학교교실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학비연대에 포함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학교돌봄터 기본계획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말썽한 학교 직영 돌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에 ‘학교돌봄터’라는 브랜드를 붙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공적 초등학교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해 당사자마다 학교돌봄터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큰 상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돌봄터 설치에 머물지 말고 충분한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안정, 직영 방안 마련과 함께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제정해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

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 역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이 학교 안에서의 돌봄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돌봄터가 기존 돌봄교실 운영 시간(오후 1~5시)을 기본으로 아침 또는 저녁에 2시간 연장되는 점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돌봄의 질인데, 정부가 지자체의 학교돌봄터 직영을 권장하면서도 비영리단체의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을 두고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간 위탁 운영은 공적 돌봄 강화라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번 기본 계획이 민간위탁 가능성도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점도 돌봄갈등을 다시 키우는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자체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학교돌봄터를 위탁운영할 경우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올 5·18 교육계획 수립 전남교육청

전남교육청이 지난 19일 각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5·18민주화운동 교육위원회를 열고, 2021학년도 5·18민주화운동 교육계획을 수립했다.

확정된 전남도 5·18민주화운동 교육계획은 교육과정을 활용한 5·18민주화운동 교육 내실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으로는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5·18 민주화운동 교육 내실화, 다양한 교육자료 제작과 배포,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주간 운영이다.

위원장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인 “교육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회의 주기를 1월과 8월 두 차례 운영하는 방안을 사업부서에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확정된 교육계획은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일선학교에 안내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백운광장 뉴딜사업’ 주민들의 생각은?

광주 남구 오늘·내일 설명회

백운광장 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 남구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0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21·22일 오후 4시 백운광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21일은 백운광장과 독립로 일대 주민과 상인들이 참석해 백운광장 뉴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백운광장 뉴딜사업은 2023년까지 879억 원이 투입, 단절된 푸른길 공원을 연결하는 푸른길 공중보

행로 사업과 남구청 외벽을 활용해 야간 경관과 LED 조명으로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 예술성을 가미한 아트 컨테이너 50개를 펼쳐놓은 스트리트 푸드존과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등을 포함한 대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다.

남구는 지난해 백운고가도로 철거를 시작으로 뉴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세부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백운광장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마련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성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연말이면 백운광장 일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휠체어 타고 운동해요

20일 광주 동구청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이 복지관 앞에 설치된 휠체어를 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에서 복지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운동을 하고 있다. 광주 동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 동구 제공>

## “교육격차 해소” 광주교육청 새 학기 준비 총력

지난해 온라인 개학시에 이어 온라인 졸업식이라는 유례없는 학사 일정을 소화해야 했던 광주교육청이 코로나19 2년째 새학기를 앞두고 빈틈 없는 개학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20일 광주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속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던 학생간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교사 원격수업 역량 강화와 인프라 구축, 학교 현장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지난 18일부터 교원 765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연수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진다.

연수에는 겨울방학을 활용, 원격수업 노하우 배우기를 희망한 교원들(중학교 74개교 432명·고등학교 40개교 333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수는 지

난해 원격수업에서 지적됐던 교사·학생간 원활한 소통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운영 노하우를 가진 29명의 교원이 강사로 나선다.

시 교육청은 교육방송 화상수업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각급 학교 원격수업 기자재 현황과 관련 예산을 파악한 뒤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달과 다음달 새학년 준비기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전문직 장학관과 장학사들이 현장을 방문, 학교별 특별 컨설팅을 진행함과 동시에 소외계층 스마트 기기 대여 등 관련 사업도 점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북구, 생활SOC사업 착공 공공인프라 확충 본격화

광주시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생활SOC사업이 본격도에 오른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 북구문화센터 및 생활SOC사업 기공식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달 24일 개관한 북구문화센터 개관식과 북구가 추진 중인 생활SOC사업 3곳의 착공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번에 개관식을 진행하는 북구문화센터는 연면적 2841㎡(지하1층, 지상 3층)에 공연장 377석, 도서관 180석, 오픈갤러리 등 문화·예술·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됐다. 특히 공연장과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북구는 전망하고 있다. 함께 진행되는 3곳의 착공식은 중흥 복합공공도서관과 ‘신용 복합공공도서관’, ‘우산동 생활SOC복합화사업’이다. 장애인형 수영장을 갖춘 ‘반디비 복합체육센터’는 2월 달에 착공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북구문화센터와 생활SOC사업은 구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문화·체육·복지·여가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SOC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2022년까지 첨단2지구 산업단지 체육공원 부지에 총 160억 원을 들여 연면적 5000㎡(지상 4층) 규모로 체력인증센터, 배구·농구·배드민턴장 등의 시설과 671석의 관람석을 갖추게 될 ‘북구종합체육관 건립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